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와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및 대인관계기술 간의 상관관계

김 대 룡*

나사렛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 대학생의 진로태도와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및 대인관계기술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발달장애 대학생의 진로교육 개선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N대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대학생 23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은 대학교양 영어 수업시간에 직업적응중심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진로태도와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및 대인관계기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 문제에 따라 기술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태도와 자기결정기술 간에는 상관($r=.903$)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둘째, 진로태도와 사회성기술 간에도 상관($r=.602$)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진로태도와 대인관계기술 간에는 상관($r=.201$)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결정기술과 사회성기술 관계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사회성기술과 대인관계기술 관계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변인 간의 상승 또는 감소효과가 존재하며, 본 프로그램에서는 진로태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에서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 발달장애 대학생, 진로태도,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대인관계기술

* 교신저자(kk9130@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본질적으로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추구하는 존재이며,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로에 의해 생활양식, 가치관, 태도가 정해지며,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그의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므로 진로선택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자신의 삶으로부터 느끼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진로선택은 복합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진로결정의 구체화된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직업이다. 인간은 진로의 결정체인 직업을 통해 경제적 부를 형성함과 동시에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나아가 자기존재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 결국, 일을 통해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갖게 되는데, 이는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장애인들도 직업을 통해 소득보장의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원천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동참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성과 판단은 직업유지 여부이다. 대개의 경우 장애인들은 취업 후 이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직은 장애인 근로자 스스로 입장에서도 이직유발 요인인 근로의욕의 저하, 부정적 심상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 동기, 정착 의지, 충성심, 몰입도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견지하는 경향이 강하다(김상욱, 유흥준, 2002). 결국, 장애인의 잦은 이직은 사회통념상 사회적 관계 상실과 조직 비적응자라는 인식을 받기 쉽게 된다.

장애인 취업 이후 이직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외적요소로 사회정책적 요인(최성욱, 2007), 인구학적 요인, 사업체 환경요인, 직업적 기술요인(이채식a, 2005), 사회적 지지요인(이봉원, 2000; 심경순, 2001) 등이 있다. 이는 장애인고용 제도나 직업재활 체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의미한다.

한편, 내적요소를 보면 개념적 및 사회적 기술요인의 숙달여부, 자기결정기술 능력, 사회성기술 능력, 대인관계기술 능력 등과 관련이 있다. 이는 취업 당사자인 장애인이 갖추어야 할 태도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유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념적 기술요인은 언어, 수 개념, 언어학습능력, 시간개념, 이해능력 등으로 이러한 능력이 숙달 및 개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은 개념적 언어로

지시되는 여러 가지 범주에 포함되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을 더 빨리 습득하게 되고, 그 만큼 직업적응에 유리한 면이 있다.(이채식b, 2005). 자기결정기술 능력이 뛰어난 학생의 경우 높은 진로의식과 높은 고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유지율, 임금, 독립적 생활 영위율, 사회적 혜택(휴가, 병가, 의료보험율)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된다(Wehmeyer & Schwartz, 1997). 적절한 사회성기술과 대인관계기술의 부족은 발달장애인의 직업유지 실패의 주원인 중의 하나이고,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생활 이전에 적절한 사회성기술과 대인관계기술 훈련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Walker, 1988). 또한 직업을 가진 장애인 중에서 독립생활을 영위하는 장애인보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의 직업유지 기간이 길고 이직경험 횟수가 낮은데, 이는 가족과 동거하는 장애인의 사회성기술 능력과 대인관계기술 능력이 더 양호할 것이기 때문이다(이채식b, 2005). 재활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이 부적절한 사회성기술이나 부족한 대인관계기술로 인해 취업에 실패하거나 고용유지에 실패한다(Hanley-Maxwell, Bordieri, & Merz, 1996)고 보고되었다.

장애인의 직업유지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인 내적요인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취업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진로태도와 관련이 있다. 즉, 내적요인의 중요한 요인인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대인관계기술의 자신감은 향후 진로태도에 대한 성숙으로 표현된다(이기학, 1992). 진로태도의 성숙은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나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현실과 타협하여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직업준비도 개념으로 진로의 핵심이 직업에 있으므로 직업성숙과 같은 개념이다(김현옥, 1989).

결국,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장애인의 외적통제요인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내적통제요인, 즉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대인관계기술 능력 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하고,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진로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자기결정기술은 훈련 및 교수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장애학생의 자기결정 증진을 위한 교수가 효과가 있다는 메타분석연구(이웅훈, 2006; Algozzine, Browder, Karvonen, Test, & Wood, 2001), 자기결정기술 교수방법(방명애, 2000), 자기결정력의 영향 검증(김언아, 2005; 김언아, 김동일, 2005), 그리고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류숙렬, 2002; 박기영, 2003)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중재프로그램 혹은 훈련을 통하여 장애학생이 자기결정행동 구성요소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활동중심의 놀이, 미술, 음악 등을 활용한 중재프로그램이 장애학생의 사회성기술 및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들(김은경, 2007; 김길환, 2006; 정해진, 2009; 이수현, 2004)이 이루어졌다. 즉, 장애인에게 부족한 사회성기술과 대인관계기술 증진을 위한 중재 및 훈련프로

그럼은 그들의 내적통제요인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Keim & Strauser, 2000).

하지만 장애인 직업훈련 및 교육에서 상기의 내적요인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긍정적 진로태도 성숙 혹은 직업준비를 위한 장애학생의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및 대인관계기술 향상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주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환경이나 일시적인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장애인 직업전환을 위한 지도프로그램 역시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구성과 실행에 있어 학교수업과 분리된 연구가 많았다.

최근에는 1995년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 및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의해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발달장애 학생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고등교육기회로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 대학생의 학습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직업전환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하고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성공적인 직업전환 위해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연구(김대룡, 신현기, 2011)를 고려해볼 때,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 대학생들의 직업선택 및 유지에 필요한 진로태도 실태분석과 더불어 진로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적요인의 기여도를 분석을 하여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N대의 경우, 발달장애대학생들은 장애가 없는 일반대학생들이 받고 있는 대학 일반 교육과정을 일반학생과 통합되어 동일하게 수강하고 있으며, 발달장애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재활자립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도 다수의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전환을 위한 활동중심의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대학생의 직업훈련 및 교육과정이 아닌 대학의 정규 교양과목인 영어수업시간에 적용되었던 활동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대학생의 진로태도와 직업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김대룡, 신현기, 2012)는 연구를 바탕으로,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와 직업적응의 내적요인인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대인관계기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일반수업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직업적응 내적요인은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는 향후 수업 및 교과지도에서 이들 변인들을 고려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양영어수업시간에 활동중심의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발달장애대학생의 긍정적 진로태도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진로태도와 프로그램 구성요소인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대인관계기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와 자기결정기술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와 사회성기술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와 대인관계기술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자기결정기술과 사회성기술의 상호작용에 따른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 차이는 어떠한가?

다섯째, 사회성기술과 대인관계기술의 상호작용에 따른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 차이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진로태도(Career attitude)

진로태도는 직업(일)의 의의와 진로선택의 준거 이해,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 겸비, 직업관의 개발, 직업인의 역할에 대한 사고 등과 같은 진로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진로태도는 진로에 대한 결정성, 진로의 목적성, 진로에 대한 확신성, 진로를 위한 준비성, 진로 결정에 대한 독립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이기학, 한종철,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진로태도란 개인이 가지게 될 직업 및 이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가치관 그리고 기대감을 의미한다.

2) 자기결정기술(self-determination skills)

자기결정기술은 자신의 삶에 있어 주체적인 결정권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부당한 외부의 영향이나 방해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삶의 질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행위이자 능력이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다(Wehmeyer, 2001). 본 연구에서의 자기결정기술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로 스스로의 의지로서 자신의 삶이나 행동에 대해 결정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자기인식,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목표설정기술, 자기조정기술 등의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사회성 기술(social skills)

사회성기술이란 사회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및 긍정적 관계, 대화기술, 자아통제능력 등이 나타난다(Walker, 1988).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로 사회성기술이 집단 내 협력과 자기주장 활동 그리고 자아통제력의 유지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4) 대인관계기술(interpersonal relation skills)

대인관계기술이란 외적 성향을 띄는 것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 및 감정표현을 통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교성, 근거성, 협동성, 친절성, 사회적 의존성, 모방성, 용역성, 대인 순응성, 관용성 등을 나타낸다(정선영, 1998).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로 대인관계기술이 대인지각능력, 자기표현능력, 대인 의사소통기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집단 내 성공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발달장애(development disabilities)

미국의 PL 95-602에 의하면 발달장애는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만성적인 손상을 22세 이전에 가지고 일생동안 지속되면서 자기보호, 수용 및 표현 언어, 학습, 이동능력, 자기지시, 독립생활 능력, 경제적 자립 등의 생활영역에서 2~3 가지 이상의 기능적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학급이나, 일반학급과 학습도움학급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을 경도 장애로 여기고, 경도장애에 학습장애, 경도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발달장애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습장애, 경도 정신지체 및 정서·행동 장애를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4년제 N대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대학생(경도정신지체, 자폐성 장애, 정서·행동장애)으로 일반학생들과 통합된 일반학과의 학생 13명과 발달장애 대학생들만으로 구성된 특성화된 학과의 학생 10명이었다. 연구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학생

둘째, 발달장애(정신지체 등) 2급 이상인 학생

cf.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판별은 연구 대상자가 대학 입학 당시 소지하고 있던 복지카드(2010.3.19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를 근거로 표기함.

셋째,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학생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 배경 정보

구 분						기 타	
구분	성별	학년	인원	소계	총계	장애유형 및 등급(명)	관련학과
비통합 학과	남	2	6	10		발달장애2급(1) 발달장애3급(1) 정신지체3급(3) 뇌병변 6급(1)	재활자립학과
	여	2	4			발달장애3급(1) 정신지체3급(3)	
통합 학과	남	1		13	23	발달장애2급(2) 발달장애3급(2) 정신지체3급(2) 학습장애3급(1) 아스퍼증후군(1)	신학과, 음악목회학과, 경영학과, 에코디자인학과, 플러위디자인학과, 토이디자인학과, 피아노학과, 태권도학과,
		2	4				
		3	3				
		4	1				
		계	8				
	여	1	3			발달장애2급(1) 발달장애3급(1) 정신지체3급(2) 뇌병변 6급(1)	
		2	1				
		3	1				
		4					
		계	5				

2. 연구 도구

1) 진로태도검사

발달장애 대학생의 진로태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송은주와 이소현(2007) 그리고 이형열(2007)의 연구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태도 검사로 사용된 도구로서 외적 타당성이 확보된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도구는 5개 하위영역의 47개 문항으로 결정성(decisiveness), 목적성(purposiveness), 확신성(self-reliance), 준비성(preparation), 독립성(independe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계수)는 .81로 보고되었으며, 이 도구의 평정척도는 Likert 척도의 5단계 측정 방식(1=절대 그렇지 않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으로 처리되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에 대한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자기결정기술검사

자기결정 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류숙렬(2002)이 Wolman, Campeau, Dubis, Mithaug, & Stolarski(1994)의 자기결정 검사(self-determination skills rating system)를 수정·변안한 도구 중에서 학생용 자기결정 기술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검사는 미국의 OSERS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자기결정 검사로 Likert식 5점 척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검사의 목적은 학생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평가와 교육적 전략 개발을 위한 것으로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자기 결정 역량과 기회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Wolman et al., 1994). 유치원 연령에서 21세까지 모든 연령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3) 사회성기술검사

사회성 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향지(1996)가 Elliot와 Gresham(1990)의 사회성 기술검사(SSRS: Social Skills Rating System)를 수정·변안한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중에서 사회성 기술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협력(Cooperation), 자기주장(Assertion), 자아통제(Self-controll)의 3개 하위영역 전체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은 전체 문항 중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문항이 두 영역에 중복되는 경우도 각 10문항이 있다. 사회성 기술 평정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로 추정된 반분신뢰도에 의한 내적합치도

계수는 .85이다.

4) 대인관계기술검사

대인관계기술(social interpersonal skills)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Valpar의 부분별 검사(Valpar Component Work Sample 17) 하위영역 중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인관계기술 영역을 본 연구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Valpar의 부분별 검사도구는 특정 학습장애인으로부터 중등도 정신지체인의 발달수준 평가(development assessment), 모의 작업평가(workshop evaluation), 대인관계 기술(social interpersonal skills), 금전관리 능력(money handling)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된 검사지이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읽기 영역에 결함이 있는 피 평가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표준화되어 있다(류현주, 2003).

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직업적응 중심의 교양영어 수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에 대하여 측정하고, 실시한 후 다시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를 측정함으로써 진로태도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수업프로그램의 구성요인인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대인관계기술에 대하여도 사전 및 사후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발달장애 대학생의 진로태도,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대인관계기술에 대한 유의한 수준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적응 중심의 교양영어 수업 프로그램 결과로 나타난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와 수업 프로그램 구성요소인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대인관계기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수업 프로그램은 교양영어 수업에 직업적응 요인을 포함하여, 영어 교과 단원에 따른 교육목표와 내용에 적절한 협동학습, 역할극 등의 활동중심의 교육활동과 조사, 마인드 맵, 자기관리 기법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등을 적용 발달장애대학생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진로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직업적응의 요인과 관련하여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의 각각의 세부 구성요소와 활동내용은 <표 2>와 같으며, 교육활동 유형은 <표 3>과 같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실체는 <표 4>와 같다.

<표 2> 직업적응 중심의 교양영어 수업 프로그램의 구성영역과 내용

영역	구 성 요 소		내 용 및 활 동	관 련 문 헌
자기 결정	a1	자기인식 (선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에 대한 선택·활동의 종류 선택 • 활동 참여 및 거부에 대한 선택 • 활동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선택 • 활동 장소의 선택·활동 시간 선택 • 활동 종료 여부에 대한 선택 	Brown, Belz, Corsi, & Wenig (1993)
	a2	문제해결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설명하기 •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구상하기 • 최상의 해결책 선택하기 • 선택된 해결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D' Zurilla & Goldfried (1971)
	a3	의사결정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대안 나열하기 • 대안의 가능한 결과 확인하기 • 선택된 행동 결과 가능성 평가하기 • 결과의 중요성(가치, 유용성) 확인하기 • 결과의 가치와 가능성 통합하기 	Beyth-marom et al., (1991)
	a4	목표설정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확인하기 • 목표쓰기 	Wehmeyer et al., (2001)
	a5	자기조정기술 (자기관찰·평가·강화, 자기주도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계획 수립하기 • 진보 평가하기와 계획 및 목표 수정하기 	Wehmeyer et al., (2001)
대인 관계 기술	b1	대인지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독립성, 평등성, 가치인정 • 타인의 능력 인정 및 신뢰 	Berger(1952)
	b2	자기표현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직성, 솔직함, 자기노출 • 비판에 대한 반응 	Jourard(1971)
	b3	대인 의사소통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성, 타인과의 만남 • 경청능력, 감정전달 및 이입 	Greene & Bureson (2003)
	b4	타인에 대한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손함, 우호, 양보, 수업집중(타인방해금지) 	Rogers(1958) Barron(1971)
	b5	집단 내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성, 업무완성, 생산성, 시간엄수 • 도움요청, 지시사항이수, 여가시간 참여 • 안전성, 재료·도구 선택 	Miller(1978)
사회성 기술	c1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게 양보하기 • 상대방의 의견 존중하기 • 상대방 도와주기 	Haring & Ryndak (1994)
	c2	자기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맞는 의견표시하기 •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 동료의 참여를 독려하기 	Falvey(1989)
	c3	자아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순종(지시사항) 금지 • 공격행동 금지 • 이탈행동 금지 	Snell(1993)

<표 3> 직업적응 중심의 교양영어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활동내용

(○ : 적용)

번호	구성요소 활동영역		직업적응 요인													
			자기결정기술					대인관계기술					사회성기술			
			a1	a2	a3	a4	a5	b1	b2	b3	b4	b5	c1	c2	c3	
①	자기평가		○	○	○	○	○									
②	자기점검		○		○		○									
③	조편성		○		○			○		○			○	○	○	
④	리더쉽(조장선출)		○	○	○	○	○	○	○	○	○	○	○	○		
⑤	자료조사	개인	○		○		○									
		조별	○		○		○					○	○			
⑥	선호·선택하기	개인	○	○	○											
		조별	○	○	○			○		○	○		○	○	○	
⑦	학습자료 만들기	개인	○	○	○	○	○									
		조별	○	○	○	○	○	○	○	○	○	○	○	○	○	○
⑧	토의(론)하기		○	○	○	○	○	○	○	○	○	○	○	○	○	○
⑨	발표하기	개인	○		○		○									
		조별	○		○		○	○	○		○		○	○		
⑩	마인드맵 활동하기	개인	○	○	○	○	○									
		조별	○	○	○	○	○	○	○	○		○	○	○	○	
⑪	문제해결하기	개인	○	○	○	○	○									
		조별	○	○	○	○	○	○	○	○	○	○	○	○	○	○
⑫	1:1 역할극 하기		○	○	○					○	○		○	○	○	
⑬	조별 역할극 하기		○	○	○		○	○	○	○	○	○	○	○	○	○
⑭	조별 게임하기		○	○			○	○	○	○	○	○	○	○	○	
⑮	자기인식하기		○		○		○									
⑯	대인인식하기							○	○	○	○	○				○
⑰	옹호·주장하기		○		○		○	○	○	○				○	○	

<표 4> 직업적응 중심의 교양영어 수업 프로그램의 실제

단 원	주문 & 계산 (Order & Calculation)	10주(차시)	10(19-20)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할 때 필요한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 • 음식 값을 알고 계산에 해당되는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 		
영역 및 제재	주요학습내용	직업적응 요인 관련 내용	
◎ 주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u, please. • May I take your order? •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 Anything else? / I haven't decided yet. • Here or to go? • I'd like a deluxe burger. One large coke, please. • can I have this dressing? • This isn't what I ordered. • Can you wrap this up, please? ○ 선호하는 것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uld you like the buffet or a menu? • How would you like it? <u>Well-done</u>, please. (rare, medium, medium-well) • What kind of dressing would you like? <u>Thousand island</u>. (French, Italian, Blue cheese) • What would you like for appetizer? I'd like a <u>shrimp cocktail</u>, please. (crab meat, onion dip) •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I'd like some ice cream, ple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의 종류알기 => 자료조사하기/마인드맵 활동하기/게임하기/선호·선택 하기 - 음식의 명칭알기 -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 명칭 알기 ● 메뉴선택하기와 주문하기 => 자료조사하기/게임하기 /선호·선택하기/1:1역할극 하기 - 다양한 메뉴에서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는 표현 알기 -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는 표현알기 - 상대방의 주문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 계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 you bring me the check? • How much is it altogether? • That comes to <u>5 dollars</u> altogether. • Waiter, Can I have the bill, please? Here it is. • I'll pick up the bill today. / This is on me. I'll treat you. / Please be my guest. I'll give you a chance next time. • Let's go Dutch. / Let's go fifty-fifty. Let's split the bill. • Do you accept V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불방법알기와 계산하기 => 자료조사하기/게임하기 /선호·선택하기/1:1역할극 하기/문제해결하기 - 돈의 단위를 알고 음식값을 지불하기 - 상황에 따라 지불방법 알아 두기(예; 본인이 내는 경우, 각자 내는 경우, 상대방이 내는 경우 등) 	

4.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본격적인 검사 및 중재절차에 앞서, SLD 교양영어 1단계 수업기간 (첫 학기 총 15주) 중에 대상자 선정 및 평정자간 신뢰도 조정을 실시하였다. SLD 교양영어 2단계 수업기간 중에 사전검사, 중재, 사후검사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소요된 각각의 기간, 중재절차 및 검사진행 절차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 세부 절차

절 차	기 간	내 용
연구 관찰 기간	2010.03.02 ~ 2010.06.15 (SLD 교양영어 1단계, 15주) 2010.09.06 ~ 2010.09.14 (SLD 교양영어 2단계, 2주)	관찰 및 평정자 신뢰도 조정 (사회성 기술, 대인관계 기술)
사전검사	2010.09.20 ~ 2010.09.25 (SLD 교양영어 2단계, 3주)	진로태도 및 자기결정기술(학생평정) 사회성기술 및 대인관계기술(평정자 평정)
중재	2010.09.27 ~ 2010.12.07 (SLD 교양영어 2단계; 4주 ~ 14주)	'직업적응 요인을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적용 실행
사후검사	2010.12.08 ~ 2010.12.14 (SLD 교양영어 2단계, 15주)	진로태도 및 자기결정기술(학생평정) 사회성기술 및 대인관계기술(평정자 평정)

5.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도구를 통하여 수집된 검사결과는 통계도구 SPSS(VER.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발달장애대학생 총 23명의 자료에 대한 것이다. 진로태도,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대인관계기술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다차원변량분석, 상호작용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평정자 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관찰 기간 동안 평정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발달장애대학생의 사회성기술 과 대인관계기술은 주평정자와 제2평정자 간 일치율이 평균 90% 이상이 될 때 훈련을 종료하였으며, 총 7회를 실시하였다. 훈련은 첫 학기(SLD 교양영어 1단계) 총 15주 수업기간 중 이루어 졌다. 제2평정자는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이며, 수업진행 시 연구보조자 역할을 하였다. 평정자 간 신뢰도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신뢰도의 평균과 범위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text{평정자간 신뢰도} = \frac{\text{일치된 문항수}}{\text{일치된 문항수} + \text{불일치된 문항수}} \times 100(\%)$$

<표 6> 사회성기술 및 대인관계기술 평정에 대한 평정자 간 신뢰도 평균 및 범위(%)

구분	사전검사 평균(범위)	사후검사 평균(범위)	전체평균(범위)
사회성 기술	92.4(86.9 - 93.7)	92.8(89.7 - 94.4)	92.6(86.9 - 94.4)
대인관계기술	91.3(87.2 - 94.1)	93.4(88.3 - 96.2)	92.3(87.2 - 96.2)

III. 연구 결과

1. 진로태도와 자기결정기술 간 상관관계

진로태도와 자기결정기술 간의 상호 관련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r)와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p)을 산출한 결과, 진로태도와 자기결정기술 간 상관계수는 $r=.903$ 으로 $p<.01$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 측정 변인 하위영역과 자기결정기술 측정 변인 하위영역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진로태도 측정 하위영역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과 자기결정기술 측정 하위영역인 행동, 인식, 학교지원, 가정지원 등의 요인 간 상관계수 값이 $r=.624 \sim r=.871$ 정도로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7> 진로태도 및 자기결정기술 하위영역 간 상관분석표

		진로태도 하위영역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자기결정 기술 하위영역	행동	.871**	.775**	.860**	.820**	.625**
	인식	.851**	.738**	.831**	.756**	.654**
	학교지원	.791**	.694**	.882**	.776**	.641**
	가정지원	.708**	.594**	.730**	.749**	.624**

** $p<.01$

2. 진로태도와 사회성기술 간 상관관계

진로태도와 사회성기술 간의 상호 관련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r)와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p)을 산출한 결과, 진로태도와 사회성기술 경우 상관계수가 $r=.620$ 으로 $p<.01$ 내에서 두 변인 간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 측정변인 하위영역과 사회성기술 측정변인 하위영역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와 같다. 진로태도 측정 하위영역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과 사회성기술 측정 하위영역인 협력, 자기주장, 자아통제 등의 요인 간 상관계수 값이 $r=.403 \sim r=.701$ 정도로 모두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진로태도 및 사회성기술 하위영역 간 상관분석표

		진로태도 하위영역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사회성기술 하위영역	협력	.513**	.403**	.678**	.532**	.485**
	자기주장	.529**	.479**	.701**	.597**	.531**
	자아통제	.539**	.459**	.689**	.557**	.501**

** $p<.01$

3. 진로태도와 대인관계기술 간 상관관계

진로태도와 대인관계기술 간의 상호 관련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r)와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p)을 산출한 결과, 진로태도와 대인관계기술 간 상관계수는 $r=.201$ 로 $p<.01$ 내에서 두 변인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 측정변인 하위영역과 대인관계기술 측정변인 하위영역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진로태도 측정 하위영역인 확신성과 대인관계기술 측정 하위영역인 관련행동의 상관계수가 $r=.294$ 로 상관이 유의하였으나, 그 외에는 진로태도의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과 대인관계기술의 사회화, 관계행동 등의 요인 간에는 모두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진로태도 및 대인관계기술의 하위영역 간 상관분석표

		진로태도 하위영역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대인관계기술 하위영역	사회화	.150	.197	.269	.132	.146
	관계행동	.109	.132	.294**	.152	.161

** $p < .01$

4. 자기결정기술과 사회성기술의 상호작용에 따른 진로태도 차이

자기결정기술과 사회성기술의 상호작용에 따른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r)와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p)을 산출한 결과, 자기결정기술과 사회성기술 간 상관계수는 $r = .605$ 로 $p < .01$ 내에서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기 연구 문제의 결과와 같이 진로태도가 자기결정기술 및 사회성기술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다차원 변량분석을 통하여 진로태도에 대한 자기결정기술 및 사회성기술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사회성기술’ 변인을 통제한 후, ‘자기결정기술’ 과 ‘진로태도’ 간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통제변인인 사회성기술 F 값 3.93과 주 효과를 나타내는 자기결정기술 F 값 6.08이 제시되고 있다. 통제변인인 사회성기술 효과를 제거한 것을 가정하여 독립변인인 자기결정기술 효과를 나타내주는 주 효과 F 값이 6.08이고, 유의도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나, 통제변인인 사회성기술 효과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성 검증 확률 값이 .065로 나타나 그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이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기술과 사회성기술 간 상관관계에서 상관계수 $r = .605$ 로 유의미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표 10> 사회성기술 통제 후 자기결정기술에 따른 진로태도 차이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통제변인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유의수준)
진로 태도	자기결정 기술	사회성 기술	설 명 령	28	6.44	0.23	9.89**
			통제변인	1	0.09	0.09	3.93(.065)
			주 효 과	27	3.82	0.14	
			간 차	16	0.37	0.02	6.08**
			전 체	44	6.81		

** $p < .01$

‘자기결정기술’ 변인을 통제한 후 ‘사회성기술’ 과 ‘진로태도’ 간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와 같다. 통제변인인 자기결정기술 F 값 67.69와 주 효과를 나타내는 사회성기술 F 값 0.71이 제시되고 있다. 통제변인인 자기결정기술 효과의 제거에서 유의도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나, 독립변인인 사회성기술 효과를 나타내주는 주 효과 F 값이 0.71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태도와 자기결정기술 간 상관계수($r=.903$)가 진로태도와 사회성기술 간 상관계수($r=.620$)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진로태도 결정에 자기결정기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1> 자기결정기술 통제 후 사회성기술에 따른 진로태도 차이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통제변인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유의수준)
진로태도	사회성 기술	자기결정 기술	설 명 력	21	6.04	0.28	8.56**
			통제변인	1	2.27	2.27	
			주 효 과	20	0.48	0.02	67.69**
			잔 차	23	0.77	0.03	0.71(.775)
			전 체	44	6.81		

* $p<.05$, ** $p<.01$

5. 대인관계기술과 사회성기술의 상호작용에 따른 진로태도 차이

대인관계기술과 사회성기술의 상호작용에 따른 진로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r)와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p)을 산출한 결과, 진로태도와 사회성기술은 상관계수가 $r=.602$ 로 유의도 $p<.01$ 수준에서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왔으나, 진로태도와 대인관계기술은 유의도 $p<.05$ 수준에서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반면에 사회성기술과 대인관계기술은 상관계수가 $r=.500$ ($p<.01$)로 상관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사회성기술 측정변인 하위영역과 대인관계기술 측정변인 하위영역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사회성기술 측정 하위영역인 협력, 자기주장, 자아통제와 대인관계기술 측정 하위영역인 사회화, 관계행동 등의 요인 간 상관계수 값이 $r=.433 \sim r=.509$ 정도로 모두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대인관계기술과 사회성기술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 검증

		사회성 기술 하위영역		
		협력	자기주장	자기통제
대인관계기술 하위영역	사회화	.447**	.435**	.433**
	관계행동	.449**	.480**	.509**

** $p < .01$

사회성기술과 대인관계기술의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상호작용 변량분석’을 통해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사회성기술과 대인관계기술의 효과는 F 값이 각각 157.62와 102.21로 진로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F 값은 268.48로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왔다. 이는 진로태도 결과는 대인관계기술이 가져오는 효과와 사회성기술이 가져오는 효과가 가산되어 나타나고, 각 변인간의 상승 또는 감소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인관계기술과 사회성기술은 진로태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표 13> 대인관계기술과 사회성기술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진로태도 차이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1	독립변인2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유의수준)
진로태도	대인관계	사회성 기술	주효과	43	6.81	0.15	175.08(.060)
			간접	1	453.06	453.06	500410.40**
			변인 1	17	1.57	0.009	102.21(.078)
			변인 2	19	2.71	0.14	157.62(.063)
			상호작용	6	1.45	0.24	268.48*
			잔차	1	0.0009	0.0009	
			전체1	45	562.32		
			전체2	44	6.81		

* $p < .05$,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양영어수업 시간에 활동중심의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발달장애대학생의 긍정적 진로태도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진로태도와 프로그램 구성요소인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대인관계기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대학생의 긍정적 진로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적응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구성요소로써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대인관계기술이 적합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각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는 <표-14>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14> 프로그램 실행 후 사전·사후검사 결과

	진로태도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대인관계기술
사전검사	3.19	2.78	0.58	1.92
사후검사	3.78	3.48	1.08	2.49
t 값	-4.33**	-5.18**	-5.54**	-3.24**

**p<.01

이를 바탕으로 각 영역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진로태도와 자기결정기술 간에는 상관계수의 값이 높게 나왔고, 진로태도와 사회성 간에는 중간정도의 상관계수의 값을 나타냈으며 모두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진로태도와 대인관계 간에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또한 자기결정기술과 사회성간에는 상관이 유의하였으며, 자기결정기술과 대인관계기술 간에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적응중심의 교양영어 수업’을 통하여 발달장애 대학생의 진로태도와 자기결정기술 간 상관계수 값이 높게나오고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발달장애 대학생의 긍정적 진로태도 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프로그램 구성에서 자기결정기술 요인이 필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이 예측되었다. 이는 자기결정기술 능력이 뛰어난 학생의 경우 높은 진로의식과 높은 고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유지율, 임금, 독립적 생활 영위율, 사회적 혜택(휴가, 병가, 의료보험율)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된다(Wehmeyer & Schwartz, 1997)는 것과, 장애학생의 직업적응과 자립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직업전환 교육프로그램 요소로 제시한 지식과 기능영역에도 자기결정기술이 들어 있어, 직업전환교육과 자기결정기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Sitlington & Clark, 2006)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기결정능력이 성과중심 전환교육에 있어 최대 목표이자 핵심요소이므로 전환교육과 연계한 자기결정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김경애, 2007)거나, 진로와 자기결정기술과의 상관을 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실험에서 자기결정기술이 높을수록 성숙된 진로태도를 나타냈다(류숙렬, 2002)는 연구에서 확인된 것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적응중심의 교양영어 수업’을 통하여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와 사회성기술 간 상관관계수 값이 중간정도 나오고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발달장애대학생의 긍정적 진로태도 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프로그램 구성에서 사회성기술 요인이 연관성이 있음이 예측되었다. 이는 지적장애인의 직업유지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적절한 사회성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생활 이전에 적절한 사회성기술 훈련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채식, 2005)는 선행연구와 의미를 같이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시된 직업적응 요인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에서 동료교수, 짝 활동, 협동학습, 모델링, 코칭 등 다양한 활동중심 교수-학습 방법 등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성기술의 하위영역이었던 협력, 자기주장, 자아통제 등의 요인이 구인된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직업적응 중심의 교양영어 수업’을 통하여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와 대인관계기술 간 상관이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남으로써 발달장애 대학생의 긍정적 진로태도 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프로그램 구성에서 대인관계기술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적용 후 장애인의 진로(인식)태도와 대인관계기술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이달엽, 2004)와 직업준비도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직업인식과 대인관계기술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이형렬, 2007)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에 방해가 되는 문제행동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타인과 접촉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의 경우 다른 일반 청소년들과 같이 인생계획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Fullerton & Coyne, 1999). 또한 발달장애 학생들의 개인적, 동기유발적, 학습적, 사회·정서 행동적 특성 등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적응 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대인관계 역시 비협동적이고 불규칙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등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많다(조용태, 1997).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 자기 통제나 자율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고, 사회의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이해력 부족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등 사회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 대인관계에서 열등한 면을 보이게 되어 통합교육환경에서 많은 문제행동과 더불어 학령기 이후 성인기까지 사회부적응 현상을 보인다(정해진, 2009). 결국, 발달장애 학생의 부정적인 대인관계 특성은 대체로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깊은(김창원, 2001) 것이지 진로태도(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와 관련이 있는 자기인식, 자기조정기술, 자기주장, 자아통제 등과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볼 때, 긍정적 진로태도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인식, 목표 설정기술, 주어진 문제 해결기술, 자기조정기술 등과 같은 자기결정기술이 필요하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 속에 타인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성기술도 필요함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지각, 타인에 대한 배려, 집단 속의 어울림, 자기의 표현과 같은 사회화 및 인간관계 행동 등 대인관계기술과 관련된 영역은 긍정적 진로태도 배양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점은 사회성기술과 대인관계기술과의 관계에서 변인 간의 상승 또는 감소효과가 존재하며 진로태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대인관계기술이 진로태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더라도 사회성기술과 대인관계기술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함을 들어 사회성기술 능력향상에는 대인관계기술이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발달장애대학생의 성공적인 직업전환을 위해서는 긍정적 진로태도 배양이 필요하며, 이는 별도의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대학생의 일반교육과정에서도 장애특성에 맞게 직업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직업적응 내적요인 중 자기결정기술과 사회성기술 영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발달장애대학생의 긍정적 진로태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수행에 있어 제시되는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교양영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대학생의 직업적응 요인 프로그램 효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양한 교과활동에서 보다 많은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진로태도와 사회성기술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함을 보인 반면, 진로태도와 대인관계기술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성기술과 대인관계기술은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 진로태도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 사회성기술 하위영역과 대인관계기술 하위영역의 선택과 상호관계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 발달장애대학생의 직업적응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진로태도, 자기결정기술, 대인관계기술, 사회성기술은 발달적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영역과 관련하여 성숙된 모습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개인 내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이러한 영역들은 장애특성과 개인의 특성을 좀 더 세분화하고 세밀한 고찰이 요구되며 양적인 자료와 더불어 질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질적인 자료는 발달장애대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에 보다 유리하고 적합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발달장애대학생 개별적으로는 취업 및 직업유지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발달장애 대학생의 직업적응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직업적응 요인을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대인관계기술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영향을 밝혔다. 직업적응 요인은 인지적 특성, 학습적 특성, 사회 정서적 특성 등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 대인관계기술,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직업적응 요인에 기초한 교육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그 효과를 입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발달장애대학생의 진로태도 및 개인 내적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길환 (2006). 구조화된 집단놀이치료를 통한 시설 거주 정신지체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경애 (2007). 개인·사회적기술 적용에 따른 정신지체학생의 자기결정능력수준.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대룡, 신현기 (2011). 발달장애 대학생의 직업전환을 위한 진로태도 분석. **지적장애연구**, 13(3), 133-152.
- 김대룡, 신현기(2012). 직업적응 중심의 교양영어 수업이 발달장애대학생의 직업준비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4(1), 75-102.
- 김상욱, 유흥준 (2002).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형태학적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6(1), 51-81.
- 김언아 (2005). 고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자기결정력이 진로 의사결정과 전환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언아, 김동일 (2005). 특수학급 정신지체학생의 자기결정력이 전환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 연구**, 39(4), 25-41.
- 김은경 (2007). 또래놀이활동이 정신지체아의 사회적응행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 김창원 (2001). 게임놀이 프로그램이 정신지체아의 사회적응속도와 대인관계 형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김향지 (1996). 사회성기술검사(SSRS)의 타당화 연구. **특수교육학회**, 17(1), 121-155.
-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계변인과의 상관관계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류숙렬 (2002). 자기결정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경도장애 학생의 자기결정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류현주 (2003). 여가활동 중심의 전환교육이 정신지체학생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박기영 (2003).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자기결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방명애 (2000). 장애아동을 위한 전이지원전략으로서의 의사결정기술교수. **특수교육학연구**, 34(3), 27-48.
- 송은주, 이소현 (2007). 생산유통 연계 판매망 구축 프로그램이 고등부 특수학급 학생들의 직업인식과 자기결정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4(2), 287-311.
- 심경순 (2003). 정신장애인이 인식하는 직업유지요인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5, 7-31.
- 이기학 (1992). 개인적 특성이 직업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 이달엽, 김다혜, 이승욱 (2004).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장애인 직업준비도에 미치는 효과. **재활복지**, 18(1), 127-151.
- 이봉원 (2000).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화 썬트는 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수현 (2004). 집단미술치료가 정신지체인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 이용훈 (2006). 정신지체인의 성과중심 전환교육을 위한 자기결정기술 촉진방략.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채식 (2005a). 정신지체인의 이직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 15(1), 69-87.
- 이채식 (2005b). 정신지체인의 직업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취업 알선 서비스 경험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이형열 (2007). 청각장애인의 직무만족,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정선영 (1998). 초등학교 부적응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 정해진 (2009). 구조화된 집단놀이 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조용태 (1997). 장애아동의 사회성 측정 방법에 관한 고찰. **정서·학습장애연구**, 13(2), 241-266.
- 최성욱 (2007).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7, 141-166.

- Algozzine, B., Browder, D., Karvonen, M., Test, D. W., & Wood, W. M. (2001). Effects of interventions to promote self-determin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1*(2), 219-277.
- Barron, F. (1971). *An eye more fantastical*. In *Training creative thinking*, G. A. Davis, & J. A. Scout eds. New York: Holt, Rinehart Winston. inc.
- Berger, E. M. (1952). The relation between expressed acceptance of self and expressed acceptance of other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7*, 778-792.
- Beyth-Maron, R., Fischhoff, B., Jacobs, K., Quadrel, M., & Furby, L. (1991). *Teaching decision making to adolescents: A critical review*. In J. Baron & R. V.
- Brown, F., Belz, P., Corsi, L., & Wenig, B. (1993). Choice diversity for people with sever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28*, 318-326.
- D'Zurilla, T. J., & Goldfried, M. R. (1971). Problem solving and behavior modif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8*, 107-126.
- Elliot, S. N., & Gresham, F. M. (1990). *Social Skill Rating System*.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Falvey, M. A., & Coots, J. (1989). Recreation skills. In Falvey, M. A. *Community-based curriculum: Instruction strategies for students with sever handicaps*. 2nd ed. 141-163.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Field, S., & Hoffman, A. (1994). Development of a model for self-determination.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17*, 159-169.
- Field, S., & Hoffman, A. (1994). *Steps to Self-Determination: A curriculum to help adolescent learn to achieve their goals*. Austin, TX: Pro-Ed.
- Fullerton, A., & Coyne, P. (1999). Development skills and concepts for self-determination in adults with autism.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4*(1), 42-52.
- Greene, J. O., & Burlison, B. R. (2003).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skills*. Mahwah, NJ and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nley-Maxwell, C., Bordieri, J., & Merz, M. A. (1996). *Supporting placement in Work and disability: Issues and strategies in career development and job placement*. Szymanski, E. N., & Parker, R. M.(Eds.). TX: Pro-ed.
- Haring, T., & Ryndak, D. L. (1994). Strategies and instructional procedures to promote social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In E. Cipani and F. Spooner(Eds.), *Curricular and instructional approaches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pp. 89-321). Boston: Allyn & Bacon.
- Jourard, S. M. (1971). *Self-disclosure*. NY: John Wiley & Sons.
- Keim, J., & Strauser, D. R. (2000). Job readiness, self-efficacy and work personality: A comparision of trainee and instructor perception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4*, 13-21.
- Miller, C. H. (1978). *Guidance Service: An Introduction*.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 Rogers, C. R. (1958). The characteristics of helping relationship, *Personal Guidance Journal*, 37, 6-16.
- Stilington, P. L., Clark, G. M., & Kolstoe, O. K. (2000). *Transition education & services for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3rd ed.), Boston, MA: Allyn & Bacon.
- Snell, M. E. (1993). *Instruction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New York: Macmillan.
- Walker, H. M. (1988). *The walker social skills curriculum: The ACCEPTS program*. TA: Pro-Ed.
- Walker, H. M., & McConnell, S. (1988). *Walker-McConnell Scale of Social Competence and School Adjustment*. Austin, TX: PRO-ED.
- Wehmeyer, M. L. (2001). Assessment in self-determination: Guiding instruction and planing. *Assessment for Effective Intervention*, 26(4), 41-49.
- Wehmeyer, M. L., Palmer, S. B., Agran, M., Mithaug, D. E., & Martin, J. E. (2000). Promoting causal agency: The self-determination learning model of instruction. *Exceptional Children*, 66(4), 439-453.
- Wehmeyer, M. L., & Schwartz, M.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33(1), 3-12.
- Wehmeyer, M. L., & Schwartz, M. (1997). self-determination and positive adult outcome: A follow up study of youth with mental retardation or learning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63, 245-255.
- Wehmeyer, M. L. (1992). Self-determination and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27, 303- 314.
- Wolman, J., Campeau, P. L., DuBois, P. A., Mithaug, D. E., & Stolarski, V. S. (1994). *AIR self-determination scale and user guide*. Palo Alto, CA: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The Correlation between Career Attitudes and
Self-Determination Skills, Social Interpersonal Skills,
Sociability Skills for College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im, Dae Ryong

Korea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career attitudes and self-determination skills, social interpersonal skills, sociability skills for college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cultural English class based on internal factors of vocational adaptation. The participants of the current study were 23 college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N university, who consisted of 10 students in non-inclusive environment and 13 students in inclusive environment. It was employ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and the descriptive analysis through SPSS(VER.12) after the educational activity program.

The finding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r=.903$) between career attitude and self-determination skills was statistically more significant. Second, The correlation ($r=.602$) between career attitude and sociability skills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 correlation ($r=.201$) between career attitude and social interpersonal skills wa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The findings further suggest tha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ducational activity for facilitating career attitudes had better focus self-determination skills and sociability skills.

Key Words :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reer attitudes, sociability skills. self-determination skills, social interpersonal skills

논문 접수: 2012. 08. 02 심사 시작: 2012. 08. 10 게재 확정: 2012. 09. 11